

“애순이의 詩처럼 매일 봄같이 살래요”



강타 동방신기

중영한 넷플릭스 ‘꼭꼭 속았수다’ 문소리

손에서 물 마를 새 없는 엄마 애순역
촬영 때면 ‘살림하러 간다’고 말하기도
엄마의 인생에도 ‘요망진 소녀’ 있어
인생의 ‘사계’에 대한 생각 바뀌어

“짧았던 우리들의 여름은 가고 / 나의 사랑도 가고”
배우 문소리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엠버서더 서울 풀만 호
텔에서 인터뷰하던 중 대뜸 가수 이정석의 노래 ‘사랑하기
에’의 한 대목을 불렀다.
몇 년 전 친구들과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가 바다를 보고 즐
거운 마음에 흥얼거린 노래였는데, 부르다 보니 ‘우리들의
여름’이 지나간 것 같아 어쩔지 슬펐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넷플릭스 시리즈 ‘꼭꼭 속았수다’를 촬영하고, 주
인공 오애순을 연기하면서 인생의 봄·여름·가을·겨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애순이에게 수많은 날이 봄이었다”며 “이 작품을 하
고 나니 애순이의 시처럼 ‘만날(만날) 봄인 듯’ 살 수 있겠더
라”고 했다.
문소리를 ‘꼭꼭 속았수다’로 이끈 것은 이야기의 힘이었
다. 그는 “대본을 하루룩 읽은 뒤 내려놓자마자 눈물이 흘렀
다”며 “분량이나 역할, 출연료, 촬영 시기와 관계없이 어떻게
든 하고 싶었다”고 돌아봤다.
주인공 애순이는 아이유와 문소리가 나눠서 연기했다. 하
고픈 것도 많고 보통이 아닌 10~20대 애순이는 아이유가, 엄
마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진 중년부터 노년까지의 애순이는
문소리가 맡았다.

문소리는 “우리도 봄·여름에는
휘황찬란했다가 가을·겨울이 되면
평범한 엄마가 된다”면서도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엄마 안에도 ‘요망진
소녀’ 애순이의 본질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엄마 역할이어서 살림하는 장면도 많이
촬영했다.
그는 “내일 촬영하러 간다”는 말 대신에 ‘살
림하러 간다’고 말할 정도였다”며 ‘딸 금명이
(아이유)가 오면 밥도 하고, 신발도 정리하고
늘 살림해야 했다. 손을 가만히 두고 대사하는 장
면이 거의 없었다”고 웃었다.
실제로 오애순의 집에 놓인 빨래들, 김밥을 찐 때 비닐
장갑 대신 쓰는 미지근한 물 종지, 손자 양제일을 싸면 포
대기 등은 모두 문소리의 손을 거친 것이다.
애를 많이 쓴 작품인 만큼 마지막 촬영을 하고는 앓아누웠
다고 한다.
그는 “요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야외에서 시를 쓰
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촬영했다”며 “1월 말에 여수에서 찍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독감으로 고열이 나서 착륙했을
때 기억이 거의 없다. 눈 뜨니 응급실에 누워있었다”고 떠올
렸다.
이어 “노인 특수분장이 잘되라고 한동안 얼굴에 화장품도
바르지 않았고, 독감까지 앓고 나니 갑자기 늙어버린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도 ‘꼭꼭 속았수다’는 좋은 대본과 연출, 배우들과 함
께해서 즐거웠던 작품이라고 기억했다.
함께 부부로 호흡을 맞춘 박해준(양관식 역)에 관해선 “물
같은 배우”라며 “소리 없이 스며들고, 부딪힘 없이 어디서든
몰처럼 안착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극중 부부로 열연한 박해준(왼쪽)·문소리.

젊은 애순이와 그의 딸 금명의로 1인 2역을 해낸 아이유에
대해서도 “아무지고 단단하며 책임감이 넘쳐나는 친구”라고
칭찬했다. 두 사람은 촬영 전부터 따로 만나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문소리는 “‘꼭꼭 속았수다’는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
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마지막에 애순이 엄마 광례 역
의 염혜란 배우가, 애순이의 시집을 내주는 편집장으로 등장
하는 장면이 “별고의 윤회사상과도 맞닿은 느낌”이라고 의미
를 부여했다.
“남편 양관식과 해녀 세 이모, 온 동네 사람들, 자식들의 보
이지 않는 사랑 덕에 애순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통해 엄마를 많이 생각했어요.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얻은 것이 참 많네요.”

/연합뉴스

강타·동방신기, SM 재계약

가수 강타와 그룹 동방신기가 오랜 기간 몸담은 SM엔터테
인먼트와 재계약을 맺었다.
SM은 동방신기가 2003년 말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오랜 기
간 쌓아온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들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고 2일 밝혔다.
동방신기는 2003년 12월 데뷔해 ‘허그’ (Hug), ‘라이징 선’
(Rising Sun), ‘주문’, ‘왜’ 등의 히트곡을 내며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이달 25~27일 일본 전국 투어의 하나로 도쿄 돔 단
독 콘서트를 앞뒀다. 동방신기는 이로써 도쿄 돔 공연 총 33
회, 전국(일본) 돔 공연 총 92회로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하게 된다.
그룹 H.O.T. 출신 가수 강타 역시 SM과 재계약을 체결했
다. 1996년 H.O.T.로 데뷔한 강타는 2001년부터는 독창곡으
로도 사랑받은 싱어송라이터다. 강타는 자신의 음악 여정을
지원하고 동행한 SM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재계약을 맺었다
고 SM은 전했다.
강타는 2014년부터 SM 비등기 이사로서 사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듀싱 레이블 스매
시히트(SMASHIT)의 총괄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로비’ 박스오피스 2위

하정우 주연·연출...개봉 첫날 3만7000명

하정우가 주연하고 연출한 영화 ‘로비’가 흥행을 이어오던
‘승부’를 넘지 못하고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했다.
3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로비’는 개봉일인
전날 3만7000여 명(매출액 점유율 27.0%)이 관람해 박스오
피스 2위에 올랐다.
하정우가 ‘허삼관’ (2015) 이후 10년 만에 선보인 연출작인
‘로비’는 연구밖에 모르고 살던 스타트업 대표 창육(하정우
분)이 국책사업을 따내기 위해 절대 골프를 시작하며 벌어지
는 이야기를 그린 블랙 코미디물이다.
말장난 같은 유머러스한 대사와 배우 간 앙상블이 좋은 반응
을 얻고 있지만, 일부 관객들 사이에선 스토리 전개가 산만하
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헌·유아인 주연의 ‘승부’는 전날 5만여 명(36.9%)을
동원해 9일째 박스오피스 정상에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87만
여 명으로 늘어 이번 주말 100만명 돌파를 노린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부’의 예매율은 25.2%(예매 관객 수 5만7천여
명)로 상영작 중 가장 높다. ‘로비’가 예매율 15.5%, 예매 관
객 수 3만5천여 명으로 ‘승부’를 추격 중이다.

/연합뉴스

지상파, 오늘 ‘尹 탄핵심판 선고’ 종일 특별 방송

뉴스특보 체제·특집 다큐 등 ...새 프로그램 홍보·첫 방송 일정도 변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을 앞두고 지상파 방송
3사는 정규 편성을 취소하고 특별 방송을 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3일 방송가에 따르면 KBS는 4일 오전부터 정규 편성을 취소
하고 뉴스 프로그램 체제를 가동한다.
KBS 1TV는 오전 6시부터 뉴스를 통해 탄핵심판 선고 분위
기를 전한다. 오전 8시 방송되는 ‘아침마당’을 제외하고 기존 프
로그램을 전부 취소했으며, 온종일 탄핵심판 선고 특별 방송을

한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5시
부터 7시 30분까지 ‘KBS 뉴스특보’를 편성했고, 특집 시사 프
로그램 ‘사사건건’, 특집 다큐멘터리 ‘계엄에서 현재 선고까지
123일의 기록’ 등을 방송한다.
MBC와 SBS도 탄핵심판 특별 방송을 할 예정으로 현재 편성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러 프로그램의 제작발표회와 첫 방송 일정도 미뤄졌다.

KBS 1TV 새 일일드라마 ‘대운을 잡아라’는 당초 7일 제작
발표회를 하고 같은 날 처음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14일로
연기했다.
4일 탄핵심판 선고 관련 특보가 편성되면서 현재 방영 중인
전작 ‘결혼하자 땀방아’의 종영일이 늦춰졌기 때문에 보인다.
KBS 2TV 축구 예능 프로그램 ‘뽀른티어’는 제작발표회를
하루 앞당겨 3일 진행한다.
MBC는 4일 첫 방송 예정인 새 금토드라마 ‘바니와 오빠들’
의 편성 변경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주여당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박당 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화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 062)222-6866

민생 경공매 연구소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122층
경력 30년 대표 토목식 직강! 재밌게 공부하며 함께 투자 가능
총 40시간 수강료 200만원 민법/집행법/행정법/기초의
기초~실전 유체동산 특강
☎ 010-7638-6918

석당 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 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행·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율컨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光州日報